

## 문화 자본으로 몸값 올리기: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자본

이 정 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 1. 시작하는 말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19세기의 여성 소설가로서 우리에게도 낯익은 많은 소설을 쓴 작가이다. 그녀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씌여진 것들로 이런 소설들의 인기가 아직도 시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글쓰기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1813년에 출간된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인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그녀의 다른 많은 소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Grey 335) 소설이다. 그녀의 소설에 대한 이같은 대중적 인기는 문학의 차원을 넘어서 영상 매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된다. 최근 그녀의 소설 대부분이 영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소설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오만과 편견』 또한 영화화되어 소설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소설은 씌여질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나폴레옹 전쟁등에 대한 묘사가 없이 단지 구혼과 결혼이라는 아주 제한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미스터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이같이 높은 인기도를 반영하여 이 소설에 대한 비평 또한 활발하며, 비평의 폭과 깊이 또한 넓고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비평에 있어 최근의 이론을 원용한 예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이 소설 읽기에 최근의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원용하여 읽음으로써 이제까지 피상적인 읽기에만 머문 이 소설의 읽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2. 부르디외의 주요 개념들

이 소설을 부르디외의 이론을 원용하여 읽기에 앞서 우리는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자본, 가치등 마르크스의 여러 주요 개념들을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 사회 현상을 분석한 사회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제도권 교육이다. 그는 특히 프랑스의 제도권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질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부 특수층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그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 그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가 도출한 결론은 프랑스의 제도권 교육의 여건을 명징하게 설명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연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의 제도권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제도권 교육에 대한 그의 연구는 『오만과 편견』을 읽는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개념의 틀을 제공한다.

그가 개발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하비투스(habitus)라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은 물론 부르디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뒤르켁(Durkheim)등의 학문 전통 속에서 생겨난 개념이다(Brooker 98). 부르디외는 하비투스를 “하나의 지속적이고 전이 가능(轉移 可能)한 정의 체계”(a durable, transposable system of definitions, *Invitation* 134)라고 정의한다. 이같은 정의 체계는 우선 가정에서 어린이에 의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 이렇게 가정에서 습득된 정의 체계는 “일차적인 하비투스”(primary habitus)가 된다. 이렇게 해서 습득된 일차적인 하비투스는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회제도를 거치는 동안 이차, 삼차 등등의 하비투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제도권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Brooker 98). 이같이 해서 형성된 하비투스의 층은 처음에는 가정에서 형성되지만, 이러한 하비투스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의 기초가 된다”(the basis of all subsequent experiences, *Invitation* 134).

부르디외의 이같은 하비투스의 정의는 알튀세(Louis Althusser)가 말하는 가정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Family ISA, Family Ideological State Apparatus)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이 이념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는 어린이가 제도권 교육 기관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차, 삼차의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동안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 발전된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는 어릴 적에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여타의 하비투스로 중무장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진다. 따라서 가정에서 형성된 하비투스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 하비투스가 될뿐만 아니라 그가 후에 형성하게 될 여타의 하비투스의 골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비투스란 어린이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 태어나 그가 몸담고 살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인 이데올로기를 전승받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하비투스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는 가정, 계급, 사회적인 지위, 교육, 이데올로기, 취향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은 하비투스는 단지 공시적(共時的)인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통시적(通時的)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부르디외는 하비투스의 이같은 통시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하비투스는] 지속적이고 전이(轉移)가 가능한 기질의 체계이며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된 구조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비투스는 실천과 재현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칙으로서 이같은 실천과 재현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의식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실천과 재현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명백히 관찰할 것을 가정하지 않고 실천과 재현의 결과에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과 재현은 결코 규칙을 따라 생성된 것이 아니면서도 객관적으로 “규제되며” “규격적”인 것으로, 이들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지도자가 조직한 행동의 결과물이 아닌데도 집단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하비투스는 종종 “게임에 대한 느낌”이나 “실제적인 감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같은 느낌이나 감각은 행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되거나 규칙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게 한다. 하비투스( habitus)는 오히려 실천과 인식을 생성하는 기질적인 감각이다. 하비투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오랜 습득 과정의 결과물로서 “제2의 감각”이나 제2의 천성이 된 것이다. 부르디외의 정의에 따르면 하비투스라고 하는 기질은 행위자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이다.

[Habitus is] the system of durable, transposable dispositions, structured structures predisposed to function as structuring structures, that is, as principles which generate and organize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that can be objectively adapted to their outcomes without presupposing a conscious aiming at ends or an express mastery of the operations necessary in order to attain them. Objectively "regulated" and "regular" without being in any way the product of obedience to rules, they can be collectively orchestrated without being the product of the organizing action of a conductor.

The habitus is sometimes described as a "feel for the game", a "practical sense" (*sense pratique*) that inclines agents to act and react in specific situations in a manner that is not always calculated and that is not simply a question of conscious adherence to rules. Rather, it is a sense of dispositions which generate practices and perceptions. The habitus is the result of a long process of inculcation, beginning in early childhood, which becomes a "second sense" or a second nature. According to Bourdieu's definition, the dispositions represented by the habitus are "durable" in that they last throughout an agent's lifetime. (*Field 5*)

위에 인용한 존슨(Johnson)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르디외가 말하는 하비투스는 사회 구성원의 외형적인 행동 규범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육화되고 내면화되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화되는 살아 있는 활동의 법칙인 셈이다.

하비투스는---구현된 역사이며, 제2의 천성으로서 내면화돼 있기 때문에 역사로서는 망각됐지만---지난 모든 과거의 산물로서 이러한 과거를 생생하게 현전화(現前化)한 것이다.

The habitus---embodied history, internalized as second nature and so forgotten as history---is the active presence of the whole past of which it is the product. (*Logic of Practice 56*)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하여 내면화한 하비투스( habitus)는 그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경우 그는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순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응용함으로써 하비투스는 이제 생명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의 행동원리가 된다. 이같은 하비투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하비투스>는 노움 촘스키의 “생성 문법”과 유추할 경우 하나의 내면화된 도식의 체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의 체계는] 하나의 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지각, 그리고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며, 또한 이런 도식의 체계가 허락하는 것만이 [거기에서는] 가능할뿐이다.

This *habitus* could be defined, by analogy with Noam Chomsky’s “generative grammar,” as a system of interiorized schemata that allow all the thoughts, perceptions and actions of a culture, and these only. (“Postface” 152)

그러면 하비투스에 의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르디외는 이를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가 정의하는 자본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의미의 자본이 아니다. 부르디외는 모든 종류의 권력(power)에 자본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본의 개념을 확대한다. 따라서 부르디외가 말하는 자본에는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등 여러 종류의 자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본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본은 “<권력>의 사회적인 관계”(social relation of power, Swartz 73)로 자리잡게 된다. 부르디외가 이같이 하비투스의 개념을 통하여 자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자본을 확대 해석한 것은 경제 행위에서 물질적/금전적 자본이 지니는 편협성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이라는 개념이 사회 자본, 교육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등으로 분화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본의 개념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 자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문화 자본은] 지식, 성취, 정규 교육이나 비정규 교육에 의해 획득된 자격의 취득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개인은 어느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전문직종 또는 조직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여 이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 자본은 우리가 광의적(廣義的)으로 “교양 있는” 개인이나 사회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문화 자본은 사회에 존재하는 비교 우위와 열세를 가름하고 이를 공고히 한다. [문화 자본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할 수는 없으며, (중략) (수입, 재산, 권력등으로 측정되는) <경제 자본>이나 <사회 자본>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Cultural capital is] the possession of knowledge, accomplishments, formal and informal qualifications by which an individual may gain entry and secure a position in particular social circles, professions and organizations. It may therefore be seen as a more systematic way of accounting for what is entailed in loose descriptions of the 'cultured' individual or social type. Cultural capital marks and reinforces kinds of re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 society, although . . . it may be held and not 'invested' at any given time and can overlap with or diverge from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or 'social' capital (measured by income, wealth and power). (Brooker 46)

따라서 문화 자본은 물질적 토대에 기초한 경제 자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이런 형태의 자본을 가지고 경제 주체가 자신의 교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의 경제 활동에서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의 목적이 단지 자본의 사용 가치의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있는 것이라면, 경제 자본이 아닌 이같은 문화 자본으로 교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 된다. 더구나 경제 주체가 가진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경제 자본의 증식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 자본에 의존하여 교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경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효과적인 자본 증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 자본의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오만과 편견』에서 문화 자본이 어떻게 교환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 3.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경혼 시장의 풍속도

재산깨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1)*

이것은 이 소설의 유명한 첫 구절이다. 이같은 묘사는 저자인 제인 오스틴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이는 딸을 다섯이나 둔 베네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하다. 이에서 보듯이 이 소설에서는 한 미혼녀의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로 여러 다른 과정을 통해 결혼한 상이한 부부들의 성혼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소설은 영국의 섭정기(the Regency Period, 1811-1820)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오스틴이 살았던 시기여서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 섭정기는 후에 조지 4세가 된 황태자 조지(George)가 조지 3세(George III)의 섭정을 맡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 계급의 구분이 엄격하고 계급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하던 때이다. 따라서 결혼은 자본을 재생산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 소설에 묘사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은 따라서 결혼이 낭만적인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 논리에 따라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자본의 형성, 축적, 및 보존 과정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에 행해지던 경제 행위로서의 결혼 행태를 아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소설이 이 시기의 결혼 시장의 양태를 보여 주는 교과서라고 불러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사회 활동의 주요 수단이 되는 사회 제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이러한 사회의 작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행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은 곧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는 공간으로 이 곳에서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수요자의 상품 구매의 필요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만나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는 결정된 가격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이 곧 상품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인육시장(人肉市場)이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같은 인육시장으로서의 결혼 시장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상품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품 시장과는 다르다. 또한 결혼 시장에서는 보통의 시장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제적인 지위가 결혼의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가치는 결혼의 성사 여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섭정기에는 통념적으로 여성은 결혼에 있어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택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있던 시기에 여성이 안정된 생활의 유지를 위해 결혼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이었다. 이같은 결혼관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결혼 습관에서 형성된 사고 형태로 이는 여성이 결혼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된 경제 활동임을 보여 준다.

결혼에서 이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으나, 결혼이 감정과 인격을 가진 두 남녀의 결합인 점에 있어서는 결혼은 경제적인 요건만으로 성립될 수는 없다. 결혼에 있어 경제적인 여건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애정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여성의 경우) 애정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경제적인 고려에 따라 결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결혼을 편의 결혼 또는 정략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지극히 한정됐던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같은 결혼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딸)에게 상속이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한 적령기 여성이 경제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같은 편의 결혼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결혼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 행위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이 자본의 유지 및 확대 재생산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했지만, 결혼은 또한 신분의 유지나 상승 또는 하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신분의 상승을 가져 오듯이 경제적인 몰락은 또한 신분의 하락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계급이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예는 이 소설에 나오는 윌리엄 루카스 경(Sir William Lucas)이다. 그는 본래 상인 출신이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시골에다 땅을 사고 신사(gentleman)로 정착하여 은퇴한 경우이다. 그리고 또한 빙리(Mr. Bingley)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상업으로 크게 돈을 번 경우이다. 이에서 보듯이 아무리 상류층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신분이 하강하는 반면에, 사회적인 신분이 낮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19세기 초 영국의 사회 계급은 이처럼 자본적인 부(富)에 의해 사회적인 계급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섭정기의 영국 여성들에게는 경제 활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가능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직업은 가정 교사(governess)와 여학교 교사(teacher)였다(Teachman 4). 가정 교사는 상류층의 하녀보다 조금 나은 직업으로, 입주(入住)하여 여자 아이들을 가르칠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상류층 사회에 속한 사람에게 걸맞는 옷을 사 입는데 써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교사의 보수로는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더구나 가정 교사 경력은 결혼에 있어 좋은 남편감을 찾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이유는 결혼 적령기 여성이 가정 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여학교 교사라는 신분 또한 가정 교사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사회적인 여건이 이러했기 때문에 적령기의 여성은 오히려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결혼 상대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상

책이었다.

사회적인 환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결혼은 결혼 적령기의 여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더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인 적령기의 여성이기보다는 그녀의 부모, 특히 어머니였다. 더구나 자신의 딸의 신분 상승과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걸린 결혼이고 보니, 결혼 적령기 처녀의 어머니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같은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시집 보내야 할 딸을 다섯이나 둔 베네트 부인이 겪는 정신적 고충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딸들을 시집보내는 것은 평생의 사업"(The business of her life was to get her daughters married, 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인 빙리가 그녀의 이웃에 있는 네더필드에 이사해 온 것은 그녀로서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는 수입이 좋기 때문에 남편감으로서도 아주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베네트 부인이 남편에게 들려 주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틀림없이 혼잘 거예요. 독신 재산가에다 일년에 4, 5천 파운드라니, 딸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란 말예요.”

"Oh! single, my dear, to be sure! A single man of large fortune; four or five thousand a year. What a fine thing for our girls!"(1)

섭정기 영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을뿐 아니라, 여성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류 사회의 여성의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딸이 한둘이 아닌 다섯이나 있는 베네트 부인이 딸들의 남편감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빙리에게 이처럼 열을 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녀의 이같은 열성은 남편인 베네트 씨가 보이는 딸들의 결혼에 대한 무관심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메어리 에반스(Mary Evans)는 베네트 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세기 지주들의 미혼한 딸들이 겪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베네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전적으로 우스운 것만은 아니다. 그녀가 딸들의 결혼에

대해 강박적인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딸들을 출가시키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계속적으로---그리고 아주 극성스럽게---물색하는 것은 분명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베네트 씨가 [그의 딸들의 결혼에 대해] 보여주는 냉소적인 관심의 결여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그에게는 부인이 하는 일이 단지 귀찮을뿐이었다.

[I]n view of the economic exigencies facing the unmarried daughters of the eighteenth-century gentry, Mrs. Bennet's concerns do not seem entirely ridiculous. Indeed, her obsessive concern with marriage and her ceaseless---and quite ruthless---pursuit of young men to marry her daughters are arguably instances of greater parental responsibility than the sardonic lack of interest of Mr. Bennet, to whom the activities of his wife are nothing but an irritation. (7)

영국 섭정기의 결혼 관행이 애정에 기초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사실은 미혼한 딸을 다섯이나 둔 베네트 부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 둔 미혼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생각은 콜린스(Collins)의 경우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그는 베네트 씨의 사촌으로 베네트 씨로부터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베네트 씨가 죽을 경우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베네트의 부동산인 롱부언(Longbourn)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같은 처지에 있는 콜린스의 후견인이며, 헨스포드(Hunsford)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자리를 구해 준 레이디 캐서린(Lady Catherine de Bourgh)은 그가 신중히 신부감을 골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할 것을 조언한다(46). 이같은 레이디 캐서린의 조언을 들은 콜린스는 베네트 씨의 다섯 딸 중의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네트 씨의 재산을 그가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하는 데 대한 보상---일종의 속죄---의 계획이었다. 그는 그 계획이 적절함과 타당성으로 가득 찬 훌륭한 것, 즉 자기 쪽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관대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This was his plan of amends---of atonement---for inheriting their father's estate; and he thought it an excellent one, full of eligibility and suitableness, and excessively generous and disinterested on his own part. (48-49)

위의 인용에 보아 알 수 있듯이, 콜린스에게는 결혼은 단지 하나의 상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로 거기에는 애정이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그는 베네트 씨네 딸 중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 쪽에서 말한다면 대단히 관대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된 콜린스는 그녀에게 청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혼 이유를 말한다.

제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나처럼) 안정된 환경에 있는 목사는 누구나 그 교구에서 결혼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결혼이 제 행복을 더욱 북돋워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후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고귀한 부인의 특별한 충고와 권면 때문입니다. (중략). 내가 헨스퍼드를 떠나기 바로 전 토요일 밤 (중략)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씨,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같은 목사는 결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부를 골라요.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여자를 고르라니까요. <당신을> 위해서는 일도 잘하고 쓸모 있는 여자라야 해요. 사치스럽게 자라지 않고 적은 수입을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나의 충고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런 여자를 발견해서 헨스퍼드로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찾아가 보죠.” (중략). 하지만 사실은 이래요.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이 토지를 상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략) 따님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님들의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지도록 말씀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슬픈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말입니다.

My reasons for marrying are: first, that I think it a right thing for every clergyman in easy circumstances (like myself) to set the example of matrimony in his parish. Secondly, that I am convinced it will add very greatly to my happiness; and thirdly---which perhaps I ought to have mentioned earlier, that it is the particular advice and recommendation of the very noble lady whom I have the honour of calling patroness. . . . [I]t was but the very Saturday night before I left Hunsford . . . that she

said, 'Mr. Collins, you must marry. A clergyman like you must marry.--Chuse properly, chuse a gentlewoman for *my* sake; and for your *own*, let her be an active, useful sort of person, not brought up high, but able to make a small income go a good way. This is my advice. Find such a woman as soon as you can, bring her to Hunsford, and I will visit her.' . . . [T]he fact is, that being, as I am to inherit this estate after the death of your honoured father . . . I could not satisfy myself without resolving to chuse a wife from among his daughters, that the loss to them might be as little as possible, when the melancholy event takes place. (74)

콜린스의 이같은 청혼 사유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의 처지를 아주 많이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그의 청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와 엘리자베스에게 모두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이같은 그의 청혼을 엘리자베스가 거절하리라고는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같은 콜린스의 사무적이고 상업적이며 금전주의적인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그녀는 콜린스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콜린스에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에는 결혼에 대해 엘리자베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콜린스나 베네트 부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이 성립되지 않자 그녀의 친구인 샬롯 루카스(Charlotte Lucas)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샬롯의 결혼관을 살펴봄으로써 엘리자베스와 샬롯의 결혼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샬롯은 27세의 미혼 여성이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친한 친구”(intimate friend, 11)로,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처녀”(a sensible, intelligent young woman, 11)이다. 그녀가 이처럼 보통 이상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이란 애정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상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당시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이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그녀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에서의 행복이란 전혀 팔자 소관이거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서로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해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켜 주진 못 해. 나중에 가서는 차츰 어긋나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 엘리자베스도 일생을 함께 지내려는 사람의 결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아는 게 좋아.

Happiness in marriage is entirely a matter of chance. If the dispositions of the parties are ever so well known to each other, or ever so similar before-hand, it does not advance their felicity in the least. They always contrive to grow sufficiently unlike afterwards to have their share of vexation; and it is better to know as little as possible of the defects of the person with whom you are to pass your life. (15)

샬롯의 이같은 말을 듣고 그녀를 잘 아는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웃기지 마, 샬롯. 그건 옳지 못해. 옳지 못하다는 건 샬롯도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샬롯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같은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거야.

You make me laugh, Charlotte; but it is not sound. You know it is not sound, and that you would never act in this way yourself. (15)

그러나 샬롯이 자신의 말과 다르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의 추측은 전혀 빗나가고 만다. 엘리자베스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샬롯은 에밀리와의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콜린스에게 은근히 접근하여 그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하고 난 후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집을 방문한다. 그녀는 거기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녀가 식당으로 쓰고 있는 곳을 엘리자베스는 거실로 썼으면 오히려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거실은 구석에 있었는데, 이는 큼직하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과 식당이 왜 이처럼 뒤바뀌었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샬롯이 평소에 식당 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 방은 다른 방보다 더 크고 바깥 경치도 훨씬 좋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콜린스 씨가 이렇게 훌륭한 방에 있게 되면 자기들만이 쓰는 방에는 있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샬롯의 이런 처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Elizabeth at first had rather wondered that Charlotte should not prefer the dining parlour for common use; it was a better sized room, and had a pleasanter aspect; but she soon saw that her friend had an excellent reason for what she did, for Mr. Collins would undoubtedly have been much less in his own apartment, had they sat in one equally lively; and she gave Charlotte credit for the arrangement. (116)

이같은 엘리자베스의 추측에서 드러나듯이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한 것은 단지 그녀가 노처녀로 늙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녀는 이처럼 편익상의 결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도 몇몇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점을 얻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녀는 단지 콜린스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얻은 셈이다. 그녀에게는 결혼이란 애정에서 우러난 헌신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단지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편익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녀의 나이가 27세라는 사실은 그녀가 일생을 노처녀로 늙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여 가정을 갖느냐 하는 분수령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중대한 기로에 다다른 샬롯은 이제 애정과 낭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음을 안다 (Teachman 10). 따라서 그녀가 콜린스와 결혼한 것은 그녀의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리적인 생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상대가 누구이든 지 간에) 밀리지 않게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안주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택한 것이다.

샬롯과 베네트 부인 그리고 콜린스가 결혼을 애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단지 하나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로 본다면, 이와는 다른 유형의 결혼관이 이 소설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리디아가 위컴에게 보이는 연애 감정(infatuation)이다. 리디아는 제복을 입은 군인을 아주 선호하는데, 그녀의 이같은 제복 선호를 만족시켜 주는 인물이 바로 인근의 민병대(militia) 연대에